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의 관계 연구

이 경 희 · 김 유 진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Sensibility and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Kyoung-Hee Lee · You-Jin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8. 23 접수)

Abstract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fashion industry is find out the fashion sensibility and preference of customers exactly. Thus it is needed that fashion sensibility is connected with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shion sensibility and the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91 kinds of costume samples have been selected from photographs in fashion magazines under color combination, inside form, texture, pattern type in clothing. I have measured fashion sensibility b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GLM,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

1. The discriminative imag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formative properties — color combination was related to attractiveness, inner form to decorativeness, pattern to harmony and texture to surface of soft and hard in clothing. 2. fashion sensibility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ormative properties especially inner form in clothing. And the trimming was identified as gorgeous and feminine. 3. Preference, Buying needs, Riches and Pleasant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especially color combination and texture.

Key words: fashion sensibility, formative property; 패션감성, 조형성

I. 서론

조형은 물질로서의 소재(matter)를 가지고 형태로서의 양식(mode)을 실현함으로써 기능으로서의 의미(meaning)를 구현하는 행위, 과정, 수단이다(김

장호, 1996). 그러므로 조형은 어떤 대상을 형성하는 물질·재료를 가지고 형태와 구조를 만듦으로서 그 대상에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는 총체적 접근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조형(造形)은 형을 만든 다라는 뜻으로 형태의 실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부분 형식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조형은 단순히 고안이나 계획을 뜻하는 디자인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이 개념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이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맞추어진다면 조형은 디자인을 통해 실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조형요소는 실질적 요소인 물질·재료에서부터 형식적 요소인 형태·구조, 그리고 내용적 요소인 기능·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조형활동을 통해 인간은 물질적 환경과 정신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의복 또한 소재와 양식을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의복조형의 궁극적인 의미는 유용성, 기능성 등의 효용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복은 아름다움, 즐거움을 나타내는 심미적인 측면뿐 아니라 의복이 하나의 기호와 의미로서 자신의 외부환경과 내면의 가치체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의미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의 가치기준이 단순히 외관, 품질, 기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희성, 전통지향성, 즐거움 등과 같이 인간중심적인 감성 키워드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표현된 감성디자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감성디자인은 의복조형 요소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하지 않은 의복은 더 이상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의복조형성과 감성과의 결합은 감성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성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내기 위해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성은 연령,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형용사 등의 제한된 어휘에 의해 표현되므로 개개인의 감성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언어로 표현된 다양한 감성을 어떻게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디자인의 감성공학적인 연구는 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물리적 기능이 우선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편리함, 안락함, 쾌적함 등의 감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의복을 포함한 패션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섬유소재 개발과 색채배색에 관련하여 감성공학을 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복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감성공학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을 분석하거나 대상에 따른 감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복디자인은 다양한 패션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 개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제품화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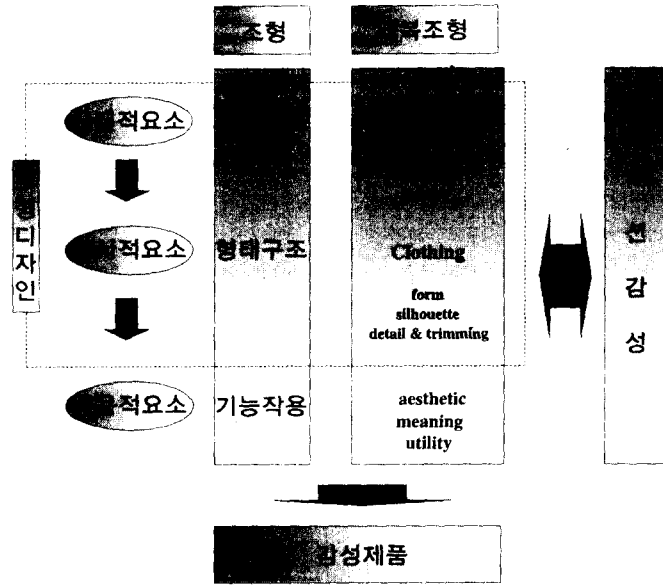
따라서 의복을 통한 미의 창조나 감성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도 감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의복디자인과 혼용되어온 의복조형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감성제품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감성적 의복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의복조형의 내적가치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조형

조형은 제품의 모든 물리적 속성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사용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서의 성능을 가지는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박종찬, 1996). 따라서 조형은 물질·재료의 실질적 요소와 형태, 표면처리, 장식 등의 외관의 특질을 좌우하는 형식적인 요소, 그리고 실제 제품이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하나의 형태속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내용적 요소로 구성된다.

의복은 색, 재질감, 무늬를 가지는 2차원의 직물 등을 인체와 동작을 고려하여 3차원의 형태로 나타냄으로서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내면세계를 시각적으로 창조해 낸다. 그리고 다른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대변해 주는 예술양식을 수용하고 표출한다. 따라서 의복은 소재라는 실질적인 요소와 양식 혹은 스타일의 형식적 요소를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의복조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용성, 기능성의 실제적인 효용가치 뿐 아니라 지각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심미성,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기호와 개념으로서의 의미성 등을 창출하는데 있다. 의복조



[그림 1] 의복조형의 개념

형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형은 재료가 되는 물질을 가지고 형태와 구조를 만듦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기능과 작용을 부여하는 일련의 연속적 전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복디자인은 색, 무늬, 재질감이 있는 직물을 사용하여 의복의 형태를 만듦으로써 형식적인 차원에서 실체화한 것이라면 의복조형은 의복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것과 유용성, 그리고 의복을 통한 내적 의미 등을 창조해 내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인 것이다.

지금까지 의복조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예술사조나 양식, 건축 등의 다른 조형예술분야와 관련하여 의복조형의 내적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김정은·정홍숙, 2000; 김윤희·김민차, 1991) 외적 형식은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복조형성에 있어 주로 외부 형태나 개더, 드레이프 등의 장식적 측면의 내부 형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강숙녀, 1998; 이진경, 1994; 이민선, 1990) 소재, 재질, 패턴 등에 대한 고찰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의 일부로 고찰되고 있으므로 의복조형 요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복조형으로 표현되는 심미성과 다양한

감성이 형태, 색채, 재질감, 무늬 등이 구조적으로 함께 통합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복조형은 형태, 색채, 소재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감성과 의복디자인

지금까지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의복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재개발이나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박수진의 3인(1997)은 직물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을 3차원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직물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는 색채와 패턴의 영향을 받으며 간접적으로 소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박수진의 2인(1998)은 직물디자인과 관련된 감성어휘 모형과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여 직물디자인 감성이미지 스케일을 제안하였다. 최자영의 5인(1998)은 직물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를 수집한 뒤 감성공학적 분석방법론을 고안하여 직물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규명하였다. 조현승의 2인(1998)은 패턴디자인의

최소단위와 최소반복단위를 개념화한 후 패턴 디자인 요소의 분석체계 개발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Kobayashi(1987)는 색채의 배색원리를 이용하여 색채의 배색이 특정한 감성이미지와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색채이미지를 형용사 언어를 중심으로 한 감성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황승인·김경인(1999)은 색채감성 DB를 구축함으로써 심리적인 색채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색채감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성 제품디자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지자(1996)는 감성공학을 이용하여 여성복의 색채와 질감에 대한 소비자 기호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한편, 감성과 의복디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를 의복디자인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는 감성공학적인 연구로서 Mitsuo Nagamachi(1991)는 감성공학 전문가 시스템인 HULIS(Human Living System)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의 선정, 형용사 수집, 형용사의 의미구조 파악,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한 슬라이드 작성, 감성평가,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20대 여대생의 감성과 원피스와 수트에 대한 의복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감성공학이 의복디자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영진(1997)은 단정한, 신선한, 소프트한, 편안한 등의 11개의 형용사에 대해 실루엣, 칼라모양, 여밈타입 등 재킷 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공학을 활용한 재킷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의미구조를 분석하여 감성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의복에 있어서 감성디자인의 개발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의복의 품목을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복은 품목과 디자인이 다양할 뿐 아니라 착용자의 감각에 따라 표현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패션경향과 소비자의 개성을 나타낼수 있는 객관화된 의복조형의 범주에서 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련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의복의 조형성에 따른 판별이미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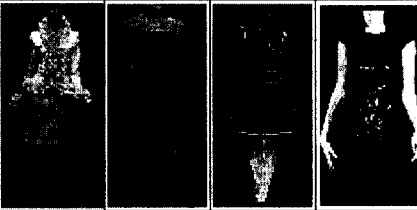
1) 자극물 구성

본 연구의 자극물은 Collections, Collezioni, Book Moda, Fashion Show 등의 국내외 패션잡지(1995년~1999년)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의복조형 요소를 형태, 색, 무늬, 재질감으로 나누어 각 조형요소에 대한 시각적 우선권을 고려하여 형태, 색, 무늬에 대한 의복사진 각 24장씩, 그리고 재질감에 대한 의복사진 19장, 총 91장으로 선정하였다.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복의 형태는 내부형태의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이는 의복의 외부형태를 나타내는 실루엣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된 형태에 조금씩의 변화만을 주고 있으므로 현재의 패션감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연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부형태를 중심으로 칼라(collar)와 소매(sleeve)의 구조적인 측면, 디테일과 트리밍의 장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은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배색에 의해 표현되므로 자극물 구성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주로 의복의 배색이 대조(contrast), 유사(similarity), 악센트(accent), 혼합(mix)배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배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색(mono color)을 첨가하여 자극물의 의복배색을 구분하였다. 무늬는 종류에 대한 원천을 고려하여 표현방법에 따라 구상(figurative)무늬는 사실적(realistic), 추상적(abstract)무늬로, 비구상(non-figurative)무늬는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 그리고 무늬가 없는 것(nothing)으로 구분하였고 재질감은 시각적 감성과 촉각적 감성을 고려하여 딱

딱한(hard), 부드러운(soft), 비치는(transparent), 광택있는(brilliant)재질감으로 나누어 의복조형성을 분석하였다.

91장의 자극물을 형태, 배색, 무늬, 재질감의 조형성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88.48%의 적중률을 보였으며 의복을 제외한 모델과 배경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얼굴 등을 제외시켜 3×5" 회색지에 부착한 사진자극물로서 실험하였다. 대표적인 자극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form | detail | neckline | trimming | sleeve |
| color | similarity | similarity | accent | mono |
| texture | soft | soft | soft | brilliant |
| pattern | nothing | abstract | nothing | nothing |

[그림 2] 자극물 구성

2)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의류학 전공자 107명에게 자유언어연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919개의 형용사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형용사의 빈도를 중심으로 의복 조형성에 따른 패션 감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의 복합 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용사를 추가하였다.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반의어와 함께 25쌍의 형용사로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으며 평가 용어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값 .8805로서 내적 일관성이 높게 검증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과 부산시에 거주하는 여성 1621명(서울 857명, 부산 764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의 상권을 고려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연령은 18세부터 43세까지로 구성되었고 1999년 8월 17일에서 30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다변량분석, 단계적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서울과 부산의 지역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패션감성을 의미한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의 조형성에 따른 판별이미지

1) 의복배색의 판별

의복배색인 대조, 악센트, 유사, 혼합배색 그리고 단색에 따른 판별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25쌍의 의복이미지 중 5쌍의 이미지가 의복배색을 판별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33%의 적중률을 보였다.

판별함수 1은 전체변량의 49.69%를 설명하고 판별함수 2는 전체변량의 37.47%를 설명하므로 판별함수 1과 2를 함께 고려하여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세련된-촌스러운 이미지가 의복배색을 판별하는데

<표 1> 의복배색의 판별함수

| | Function1 | Function2 | Wilks' Lambda | F-Value | Hit-ratio(%) |
|--------------|-----------|-----------|---------------|----------|--------------|
| 세련된-촌스러운 | 1.285 | 1.239 | 0.742 | 7.473*** | 59.33 |
| 화려한-수수한 | 0.153 | -1.362 | 0.625 | 4.006** | |
| 감성적인-이성적인 | 0.414 | 1.172 | 0.469 | 6.990*** | |
| 깨끗한-지저분한 | 2.124 | -0.501 | 0.289 | 6.496*** | |
| 보기좋은-보기싫은 | -2.556 | -0.152 | 0.263 | 2.683* | |
| 판별함수의 기여율(%) | 49.69 | 37.47 | | | |

^a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p<0.01 *p<0.05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깨끗한-지저분한, 감성적인-이성적인 등의 이미지와 관련되므로 의복의 매력적인 측면은 의복배색에 의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2) 내부형태의 판별

의복의 내부형태인 칼라, 소매, 넥라인, 디테일, 트리밍에 따른 판별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5쌍의 이미지가 의복의 내부형태를 판별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8.82%의 적중률을 보였다.

전체변량의 63.24%를 설명하는 판별함수 1을 중심으로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화려한-수수한의 의복의 내부형태를 판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적인-남성적인, 발랄한-점잖은 등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내부형태는 화려한-수수한의 장식성과 성적 이미지 그리고 성숙성을 나타내는 연령과 관련하여 판별됨을 알 수 있다.

3) 의복무늬의 판별

무늬는 그 자체가 색을 지닌 선, 공간, 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각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조형요소의 하나이다. 무늬는 근원에 따라 실제 자연에 있는 대상을 재현한 구상무늬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에 의해 창조된 비구상무늬로 나눌 수 있다. 구상무늬는 다시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적, 추상적 무늬로 나눌 수 있으며 비구상무늬는 선, 원, 사각형 등의 일정한 형을 이루는 정형과 그렇지 않은 비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무늬의 근원과 표현방법에 따른 정형, 비정형, 사실적, 추상적인 의복무늬의 판별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7쌍의 이미지가 의복무늬를 판별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9.84%의 적중률을 보였다.

전체변량의 51.45%를 설명하는 판별함수 1을 중심으로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깨끗한-지저분한이 의복무늬를 판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우아

〈표 2〉 내부형태의 판별함수

| | Function1 | Function2 | Wilks' | F-Value | Hit-ratio(%) |
|--------------|-----------|-----------|--------|---------|--------------|
| 여성적인-남성적인 | 0.919 | 0.943 | 0.625 | 3.436* | 48.82 |
| 감성적인-이성적인 | -0.129 | -1.358 | 0.558 | 2.523* | |
| 화려한-수수한 | -0.941 | 1.077 | 0.497 | 2.577* | |
| 재미있는-재미없는 | 0.372 | -0.568 | 0.407 | 4.511** | |
| 발랄한-점잖은 | 0.893 | 0.270 | 0.362 | 2.529* | |
| 판별함수의 기여율(%) | 63.24 | 28.34 | | | |

*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p<0.01 *p<0.05

〈표 3〉 의복무늬의 판별함수

| | Function1 | Function2 | Wilks' Lambda | F-Value | Hit-ratio(%) |
|---------------|-----------|-----------|---------------|----------|--------------|
| 깨끗한-지저분한 | -2.116 | -0.023 | 0.805 | 5.198*** | 69.84 |
| 자연스러운-어색한 | 0.455 | 0.594 | 0.683 | 3.791*** | |
|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 1.016 | -3.163 | 0.605 | 2.683* | |
| 우아한-천박한 | -1.718 | 2.448 | 0.538 | 2.580* | |
| 화려한-수수한 | 0.378 | 1.414 | 0.469 | 3.045* | |
| 단정한-단정하지않은 | 1.969 | 0.823 | 0.403 | 3.275* | |
| 감미로운-썩쓸한 | 0.788 | -0.154 | 0.344 | 3.421* | |
| 판별함수의 기여율(%) | 51.45 | 28.16 | | | |

*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p<0.01 *p<0.05

<표 4> 재질감의 판별함수

| | Function1 | Function2 | Wilks' Lambda | F-Value | Hit-ratio(%) |
|--------------|-----------|-----------|---------------|----------|--------------|
| 부드러운-딱딱한 | 1.031 | -0.726 | 0.797 | 7.371*** | 68.53 |
| 화려한-수수한 | -0.467 | 1.054 | 0.636 | 7.263*** | |
| 우아한-천박한 | -0.582 | -0.550 | 0.549 | 4.487*** | |
| 명랑한-우울한 | -2.061 | -0.058 | 0.487 | 3.561* | |
| 세련된-촌스러운 | 0.878 | 0.690 | 0.382 | 7.595*** | |
| 발랄한-점잖은 | 1.754 | -0.328 | 0.331 | 4.203*** | |
| 판별함수의 기여율(%) | 49.69 | 37.47 | | | |

^a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p<0.01 *p<0.05

한-천박한,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등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는 그 자체의 형태뿐 아니라 색채, 크기, 배열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저저분한, 단정한, 자연스러운 등의 의복 전체와의 조화를 나타내는 이미지에 의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4) 재질감의 판별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있는 재질감에 따른 판별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6쌍의 이미지가 재질감을 판별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53%의 적중률을 보였다.

판별함수 1은 전체변량의 49.69%를 설명하고 판별함수 2는 전체변량의 37.47%를 설명하므로 판별함수 1과 2를 함께 고려하여 판별계수를 살펴보면 부드러운-딱딱한, 세련된-촌스러운 이미지가 재질감을 판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려한-수수한, 우아한-천박한 등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재질감은 부드럽거나 딱딱한의 표면감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세련된 고급감을 나타내는 이미지, 화려한-수수한의 현시감을 나타내는 이미지에서 재질의 특성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2.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의 관계

패션감성과 의복 조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패션감성을 의미하는 25쌍의 형용사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 중 화려한-수수한이 의복조형성에 따른 감성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적인-남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좋아하는-싫어하는, 특이한-평범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식성을 나타내는 화려한-수수한, 여성·남성성을 나타내는 여성적인-남성적인, 경연성을 나타내는 부드러운-딱딱한의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1) 화려한-수수한의 감성과 의복조형성

회귀계수 Beta값에 따라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려한-수수한의 감성은 의복 내부형태에서 감성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복배색, 재질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려한-수수한 감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의복무늬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려한 감성의 디자인을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의복조형성은 의복의 내부형태임을 알 수 있다. 내부형태에 있어서는 트리밍이 화려한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으며 디테일, 네크라인의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 소매의 의복 구조적인 측면은 화려한의 감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의복배색에 있어서는 단색이 화려한 수수한의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적 차이가 두드러진 의복의 내부형태와 재질감을 나타내는 자극물이 모두 단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악센트배색, 혼합배색이 화려한-수수한 감성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화려한 수수한의 감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대조배색

〈표 5〉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

| 패션감성 | | 화려한 - 수수한 | | | 여성적인 - 남성적인 | | | 부드러운 - 딱딱한 | | |
|---------------------------------|-------------|-----------|-------------|-----------|-------------|-------------|-----------|------------|-------------|-----------|
| | | Beta | type III SS | F-value | Beta | type III SS | F-value | Beta | type III SS | F-value |
| c o l o r | accent | 0.311 | 1561.85 | 170.67** | -0.170 | 884.86 | 98.67** | -0.693 | 1086.50 | 133.90*** |
| | contrast | -0.109 | | | -0.259 | | | -0.569 | | |
| | mix | 0.315 | | | -0.559 | | | -0.697 | | |
| | mono | 0.871 | | | 0.407 | | | 0.030 | | |
| | similarity | 0.000 | | | 0.000 | | | 0.000 | | |
| f o r m | collar | -0.789 | 2221.96 | 242.80*** | -1.001 | 2278.11 | 253.89*** | -0.547 | 1293.83 | 161.93*** |
| | detail | -0.214 | | | -0.500 | | | -0.194 | | |
| | neckline | -0.290 | | | -0.173 | | | 0.083 | | |
| | sleeve | -1.303 | | | -1.193 | | | -0.821 | | |
| | trimming | 0.000 | | | 0.000 | | | 0.000 | | |
| p a t t e r n | abstract | 0.405 | 1207.07 | 131.90*** | 0.255 | 900.41 | 100.35*** | 0.132 | 473.33 | 59.28*** |
| | atypical | 0.784 | | | 0.523 | | | 0.448 | | |
| | nothing | -0.443 | | | -0.191 | | | -0.021 | | |
| | realistic | 0.387 | | | 0.988 | | | 0.808 | | |
| | typical | 0.000 | | | 0.000 | | | 0.000 | | |
| t e x t u r e | brilliant | 0.500 | 1336.57 | 194.74*** | -0.287 | 242.15 | 80.71*** | -0.267 | 289.86 | 65.06*** |
| | hard | -0.497 | | | -0.411 | | | -0.291 | | |
| | soft | -0.551 | | | -0.148 | | | 0.083 | | |
| | transparent | 0.000 | | | 0.000 | | | 0.000 | | |

***p<0.001 **p<0.01 *p<0.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너무 쉽게 눈에 띄는 대조배색은 주목성은 높으나 자칫 촌스러워 질 수 있으므로 화려한 감성과의 관련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재질감에 있어서는 광택있는 재질감이 가장 화려한 감성과 관련이 높으며 다음으로 비치는 재질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려한 감성은 재질감에 있어 딱딱한, 부드러운의 촉각적 측면보다 시각적인 측면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의복무늬에 있어서는 비정형의 무늬가 화려한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추상적인, 사실적인의 순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무늬가 없거나 정형적인 무늬가 화려한 감성과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화려한 감성을 의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색이나 무늬의 측면보다 비치거나 광택이 있는 소재의 시각적 효과를 살리고 트리밍과 디테일로 의복의 내부형태를 부각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2) 여성적인-남성적인 감성과 의복조형성

여성적인-남성적인 감성은 의복 내부형태에서 감성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복무늬, 의복배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적인-남성적인 감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재질감으로 나타났다.

내부형태에 있어서는 트리밍이 여성적인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으며 네크라인, 디테일의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 소매와 같은 의복의 구조적인 측면은 여성적인 감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의복무늬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무늬가 여성적인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정형, 추상적인 무늬의 순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무늬가 없거나 정형적인 무늬가 여성적인 감성과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배색에 있어서는 단색이 여성적인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사배색, 악센트배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배색과 혼합배색은 여성적인 감

성과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재질감에 있어서는 비치는 재질감이 가장 여성적인 감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드러운, 광택있는 재질감의 순으로 관련있게 나타났다. 딱딱한 재질감이 여성적인 감성과 가장 관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적인 감성을 의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색상이나 소재의 측면보다 디테일과 트리밍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부가하거나 사실적인 무늬를 의복에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부드러운-딱딱한의 감성과 의복조형성

부드러운-딱딱한의 감성 또한 의복 내부형태에서 감성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복배색, 의복무늬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드러운 딱딱한의 감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재질감으로 나타났다.

내부형태에 있어서는 네크라인이 부드러운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트리밍, 디테일의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 소매의 의복 구조적인 측면은 부드러운 감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의복배색에 있어서는 단색이 부드러운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사배색, 악센트배색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배색과 혼합배색은 부드러운 감성과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의복무늬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무늬가 부드러운 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정형, 추상적인 무늬의 순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무늬가 없거나 정형적인 무늬는 부드러운 감성과도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재질감은 부드러운 재질감이 부드러운 감성과 가장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치는, 광택있는 재질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딱한 재질감이 부드러운 감성과 가장 관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드러운 감성을 의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복무늬나 소재의 측면보다 색체에 있어 단색 혹은 유사배색을 의복디자인에 적용하고 정돈된 네크라인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4.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

의복조형성과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은 의복배색, 내부형태, 의복무늬, 재질감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의복배색과 재질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배색에 있어서는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 모두 유사배색이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단색, 악센트배색의 순으로 관련있게 나타났다.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관련이 낮은 것은 혼합배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배색은 단색보다는 단조롭거나 단순하지 않으며 무난하고 세련된 감각을 나타내지만, 너무 많은 색으로 구성된 혼합배색은 재미있고 특이한 감성을 나타내기에는 하나 선호도와 구매의도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질감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딱딱한, 광택있는, 비치는의 순으로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감성을 나타내는 부드러운 재질감이 고급스러움과 쾌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호도, 구매욕구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내부형태에 있어서는 고급감과 구매욕구는 트리밍, 선호도와 쾌감에는 네크라인이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테일이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가장 관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장식적 효과를 가지더라도 트리밍, 네크라인과 같은 선(line)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칼라나 소매와 같은 형태적 특성보다 장식성은 다소 낮지만 보다 더 매력적이므로 선호도와 구매욕구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의복무늬에 있어서 사실적인 무늬가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상적인 무늬가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자연에 있는 물체를 대상으로 심하게 변형되거나 단순화되지 않은 구상무늬가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와 연결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무늬의 원천을 가지더라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오히려 감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급감과는 특이한 재미있는 감성을 나타내는 비정형 무늬가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정한 형이 없이 자유로운 형태를 표현한 독특한

〈표 6〉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과 의복조형성

| 조형성 | 패션감성 | 선호도 | | | 구매욕구 | | | 고급감 | | | 쾌감 | | |
|---------|-------------|--------|-------------|-----------|--------|-------------|----------|--------|-------------|-----------|--------|-------------|----------|
| | | Beta | type III SS | T-value | Beta | type III SS | T-value | Beta | type III SS | T-value | Beta | type III SS | T-value |
| color | accent | -0.713 | 1203.58 | 110.99*** | -0.644 | 1069.00 | 99.69*** | -0.490 | 1024.15 | 116.00*** | -0.354 | 275.73 | 66.40*** |
| | contrast | -0.808 | | | -0.805 | | | -0.677 | | | -0.522 | | |
| | mix | -0.991 | | | -0.864 | | | -0.839 | | | -0.454 | | |
| | mono | -0.313 | | | -0.243 | | | -0.018 | | | -0.149 | | |
| | similarity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form | collar | -0.168 | 258.58 | 23.85*** | -0.219 | 317.15 | 29.55*** | -0.053 | 806.59 | 91.34*** | -0.182 | 130.07 | 22.99*** |
| | detail | -0.361 | | | -0.434 | | | -0.667 | | | -0.254 | | |
| | neck line | 0.037 | | | -0.028 | | | -0.450 | | | 0.004 | | |
| | sleeve | -0.222 | | | -0.316 | | | -0.434 | | | -0.183 | | |
| | trimming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pattern | abstract | 0.335 | 218.19 | 20.12*** | -0.293 | 225.39 | 21.00*** | -0.153 | 22.76 | 2.58*** | -0.221 | 86.80 | 15.34*** |
| | atypical | 0.035 | | | 0.036 | | | 0.012 | | | -0.111 | | |
| | nothing | 0.063 | | | 0.112 | | | -0.084 | | | 0.035 | | |
| | realistic | 0.223 | | | 0.258 | | | -0.041 | | | 0.103 | | |
| | typical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texture | brilliant | 0.269 | 296.74 | 36.37*** | 0.369 | 428.16 | 53.19*** | 0.573 | 291.49 | 59.12*** | 0.180 | 176.12 | 41.50*** |
| | hard | 0.475 | | | 0.638 | | | 0.592 | | | 0.356 | | |
| | soft | 0.527 | | | 0.610 | | | 0.645 | | | 0.399 | | |
| | transparent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p<0.001 **p<0.01 *p<0.05

창의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선호도와 구매욕구를 증가시키고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의복배색과 재질감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너무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는 번쩍이거나 비치는 소재를 피하여 유사배색 혹은 단색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복디자인의 고급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복배색과 내부형태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유사배색, 단색을 사용하고 트리밍을 이용한 선(line)의 장식성을 부가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조형성은 디자인 요소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판별이미지에 차이를 보였는데 의복배색은 세련

된-촌스러운 등의 매력적인 이미지에 의해, 내부형태는 화려한-수수한 등의 장식적인 이미지와 발랄한-점잖은 등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의해, 의복무늬는 깨끗한-지저분한 등의 조화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의해, 재질감은 부드러운-딱딱한 등의 표면감과 화려한-수수한 등의 현시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의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2. 패션감성은 의복조형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장식성을 나타내는 화려한-수수한, 여성·남성성을 나타내는 여성적인-남성적인, 경연성을 나타내는 부드러운-딱딱한의 감성이 의복조형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패션감성은 대부분 의복의 내부형태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는데 화려한 감성은 트리밍, 광택있는 재질감, 악센트 배색, 비정형의 무늬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적인 감성은 트리밍, 사실적인 무늬, 단색, 비치는 재질감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드러운 감성은 네크라인, 단색, 사

실적인 무늬, 부드러운 재질감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3.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은 의복배색, 내부형태, 의복무늬, 재질감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의복배색과 재질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배색에 있어서는 여성적인 감성의 유사배색이, 재질감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재질감이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 모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형태에 있어서는 여성적이고 화려한 감성의 트리밍이 고급감과 구매욕구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고 의복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네크라인이 칼라보다 선호도와 쾌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무늬에 있어서는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감성인 사실적인 무늬가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과 가장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의복디자인과 혼용되어온 의복조형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의복디자인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식성, 여성·남성성, 경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감성어휘와 의복조형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패션 감성과 좀 더 세분화된 의복조형요소와의 관계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숙녀(1998), 최근 오프뚜튀르 복식에 표현된 개더(Gather)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1(3), 25-33.
 김미지자(1996) Texture & Colo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희·김민자(1991),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9(1), 1-12.

김장호(1996), 디자인조형에서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0(16), 199-210.
 김정은·정홍숙(2000) 제 2차 대전후 조형예술과 Christian Dior의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50(2), 59-80.
 박수진·조경자·장준익·김길님(1997), 직물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모형, '97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박수진·장분익·정찬섭(1998), 직물디자인 감성 이미지 스케일, '98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종찬(1996), Good Design제품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93, 94세계 GD 선정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13), 259-275.
 이민선(1990), Drapery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조형적 특성과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진(1997), 감성공학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경(1994), 현대패션에 표현된 퀼트(Quilt)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승·지상현·이주현(1998), 섬유 패턴 디자인의 요소 분석체계 개발 가능성, '98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자영·이현주·오대옥·임춘성·이병도·정경연(1998), 직물디자인의 감성공학적 분석 방법론 연구, 한국감성과학회지, 1(2).
 Kobayashi, Singenobu(1987), A Book of Colors, Kodansha International, Japan. 황상민, 김경인(1999), 색채감성척도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재인용.
 Mitsu Nagamach(1991), An Image Technology Expert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Design Consul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3).
 森下あおい(1998), 現代ファッションの方向, 繊維消費科學誌, 20(12).
 木島山かね, 服装のためのデザイン. 東京 同文書院.